



“이순간, 나는 새”

폴란드 카밀 스토흐 선수가 지난 22일 스위스 엔겔버그에서 열린 국제 스키연맹(FIS) 스키점핑 월드컵에서 새처럼 비상(飛翔)하고 있다. 카밀 스토흐가 우승을 차지했고, 잔 지오브로(폴란드)와 안드레아스 벨링거(독일)가 뒤를 이었다. 스키점핑은 급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도약대에서 점프해 가능한 멀리 날아가 착지하는 스포츠이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내년 3월 29일 스타트

KBO, 팀당 128경기·팀간 16차전씩 총 576경기 확정

KIA, 대구서 2연전... 챔피언스 필드 4월1일 첫 경기

2014 프로야구가 3월29일 스타트를 끊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3일 2014년도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경기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프로야구는 3월29일 막이 오르며 팀 당 128경기, 팀 간 16차전씩 총 576경기

가 치러진다.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첫 경기는 4월1일이다. 개막경기가 2012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1~4위 팀의 홈구장에서 개막하면서(1-5위,

2-6위, 3-7위, 4-8위 편성) KIA는 대구에서 개막 2연전 일정을 시작한다. SK는 문학에서 넥센을 만나고, '한지붕 두 가족' 두산-LG가 개막 상대로 맞붙는다. 시작에서는 롯데-한화의 개막전이 열린다.

개막전 일정에 따라 두 번째 일정이 진행되는 4월1일 챔피언스 필드시대가 열리게 된다. 상대는 막내 NCD다.

어린이날 경기도 격년제 편성에 따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치러진다. 어린이날 대진은 KIA-넥센(광주), LG-두산(잠실), SK-

롯데(문학), 삼성-NC(대구)로 짜였다.

각 팀은 홈·원정 각각 8경기씩 팀 간 16차전을 치르게 되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3연전 일정에 이어 2연전 일정까지 소화한다. 홈구단 체제에 따른 휴식기도 있다. 이번 일정에 따라 각 팀은 최소 10차례(삼성·롯데·KIA)에서 최대 14차례(넥센)까지 휴식팀, 휴식 예정팀과 대결을 갖는다.

한편 퓨처스 올스타전과 올스타전은 오는 7월17~18일 이틀간 연속으로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개월... 좋은 기억만 안고 갑니다”



신승현

KIA 신승현, 이대형 보상선수로 LG행

언제, 어떤 상황에서 투입될지 모른 채 몸을 풀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 스포트라이트는 경기의 문을 여는 선발과 승부를 확정짓는 마무리의 몫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당쇠'로 불리곤 한다.

마당쇠로 불리는 볼펜 투수들. 그중에서도 유독 더 마당쇠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있기 마련이다. 올 시즌 KIA의 '마당쇠'는 신승현이었다.

신승현은 지난 5월 김상현·진해수와와의 트레이드로 송은범과 함께 SK에서 KIA로 이적한 선수다. 그리고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대형의 FA 보상선수로 다시 LG 유니폼을 입게 된 '기구한 운명'의 선수이기도 하다.

신승현은 반년도 되지 않아 짐을 다시 싸들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의 살림을 정리하고 경기도로 이사를 하면서 KIA와의 인연도 정리했다.

신승현은 “1년에 두 번이나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짐이 끝이 없다”고 웃었다.

부상 공백, 팀에서의 입지가 좁아져 잊혀져 가던 이대형이지만 신승현은 트레이드와 함께 이대형의 FA 보상선수로 KIA로 돌아왔다.

올 시즌 KIA 투수 중에서 가장 많은 55경기에 투입돼 51.2이닝을 소화했다. 'KIA 신승현'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성적은 4.88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1패8홀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느라 초반 활약에 비하면 아쉬운

뒷심이였다. 신승현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아쉽고 속상하다. 그래도 KIA를 통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한 시즌을 돌아봤다.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 정든 이들과의 작별이다.

신승현은 “처음 KIA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싫기도 했고 걱정부터 했다. 그런데 광주에서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많이 나눴다”며 “이상하게 애감이 좋지 않았다. 내가 LG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섭섭한 부분도 있었다. ‘내가 왜?’라는 생각도 했지만 좋은 기억과 추억만 가지고 가기로 했다. 새로운 팀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승현은 또 “KIA는 어린 투수들이 많은 팀이다.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기를 풀어가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후배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특히 KIA 후배들은 자신이 던지고 싶은 공만 던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 더 강하고 좋은 선수들도 성장하면 좋겠다”고 동료로 지냈던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육원에 간 '호랑이들'

KIA 한기주·안치홍, 일일호프·애장품전 기금 전달



한기주

안치홍

KIA 한기주와 안치홍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 보육원을 찾았다. 사랑의 일일호프를 통해 모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앞서 한기주와 안치홍은 21일 두산 김현수·이원석, 롯데 황재균과 사랑의 일일호프와 애장품 경매 행사를 진행했다.

3년째 계속된 행사를 통해 선수·팬들이 하나가 되어 귀중한 성공을 마련했다. 행사를 주최했던 한기주는 일일호프 다음 날 직접 장을 봐 가져와, 불티슈, 간식, 옷 등을 장만했다. 사인배트와 사인볼 등의 특별한 선물까지 가

득 신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안치홍도 오후 일정이 끝나자마자 보육원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미니 사인회를 열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안겨줬다. 일일호프 장소를 제공했던 배우 노승범 씨도 보육원 방문에 동참해 연말을 따뜻하게 빛냈다.

한기주는 “좋은 일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니 행사에 참가한 멤버들 모두 내년 준비 잘해서 야구선수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맞이 왔어요”

윤석민 일시 귀국

국내 유턴은 없던 윤석민(전 KIA)이 한국에 있다. 지난 21일 윤석민이 귀국을 했다. 10월 미국으로 떠난 지 두 달여 만의 귀국이다. 윤석민의 조용한 귀국이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이 화제가 됐다. 상황이 상환인자라 '빅 리그 도전 포기'가 아니냐는 반응 속에 국내 구단들과의 접촉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윤석민은 “출국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내에서 연말을 보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일 뿐이다. 내달 10일 다시 출국해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혹시 모를 오해가 있을까봐 조용히 귀국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미국으로 떠날 때 윤석민은 11월 중순 중도 귀국을 얘기했었다.

에이전트 측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현지 분위기를 살핀 뒤 협상이 무르익을 때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빅리그 진출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운동과 생활에 만족감을 보이면서 윤석민의 귀국이 늦어졌다. 미국 체류가 길어진 것과 조용한 귀국은 협상 진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윤석민 측의 설명이다.

윤석민은 “사실 앞으로 전망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조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일단은 미국 진출만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친구들과 연말 잘 보내고 새해를 맞겠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광주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지만 구단과의 협상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차분하고 즐겁게 연말을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대한체육회 공로패

전승현(60)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방체육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전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전남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남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 사장은 제주·경기 등 타지역 시·도체육회 교류 활성화와 함께 해남군청 펜싱팀과 여수 총무고 여자부 볼러팀, 여수 화양고 남자부 농구팀 창단을 건언하는 등 폭넓은 행보를 했다.

앞서 전 사장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사격



전승현

후보선수들의 동계 합숙 훈련시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전승현 사장은 “비록 1년 6개월여 간의 짧은 재임이었지만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전남체육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